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어수선함과 염려를 이겨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3월 한 달을 특별 기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 두 가지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1) St David's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 2) 한국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3. 성경 정독 100일 운동 이번 주 범위는 열왕기하 15장 - 역대상 17장까지입니다. 말씀의 교훈이 삶을 이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4.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 코로나 19 여파로 점심 식사 교제, 공동체 예배, 인도자 성경 공부 (공동체 학습방법 성경 공부 포함)는 3월 한 달간 쉽니다. 그러나 기도회는 계속합니다.
6. 금요 기도회가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 6시 50분부터).
7. 오늘 점심 식사 교제 떡을 제공한 박병민(이기중 권사) 장로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8. 뉴질랜드와 호주노회가 통합하여 남태평양 노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태한 목사는 부노회장으로 피선).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3월 교회사역일지
3월 1일(주일) 사순절
3월 11일(수) 연합 찬양 예배
3월 25일(수) 1 남여선교회 주관 예배
3월 29일(주일) 성찬 주일

3월 기도 순서
3월 15일 (주일) 박병민 장로
3월 18일 (수) 김자경 권사
3월 22일 (주일) 손조훈 집사
3월 25일 (수) 선교회

3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박해정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10호 2020.03.08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금 주 기 도
이예은 자매
다음 주 일
오혜신 자매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63:1-3	인도자
✧찬 송	----- 27장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 268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 역대하 7:13-16	인도자
찬양대찬양	----- 완전하신 그사랑	나무삼자가찬양대
설 교	-----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태한 목사
찬 송	----- 456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연합 찬양 예배

기 도	-----	김은희 집사
성 경 봉 독	----- 시편 150:1-6	찬양할지어다
설 교	-----	이태한 목사
찬 송	-----	연합 찬양단
주 기 도	-----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조국의 어려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남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2월 선교 현장 스케치를 보내드립니다.

틴에이저: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 이동이 많은데 주일학교와 틴에이저 모임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아이들을 정착시키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발굴하여 성경공부와 훈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어린이 전도 교실: 어린이 전도를 위해 빌리 그레함 재단에서 지역 교회 교사들을 초청하여 2일간 교육을 하였습니다. 흑인촌에 어린이 교육이 전무한데 그래서 이런 현지인 교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눈물의간증: 리바디(26)는 아동부 부장이며 집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임시직으로 경찰청에 근무를 하면서 수년을 한결같이 교사, 찬양대, 통역자로 열과 성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쁘고도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정식 공무원으로 뽑혀 여기서 350km 되는 지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60%가 넘는 지역에서 리바디의 공무원 입성은 모두의 부러움이 되었고 크게 축하할 일이었지만 교회는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리바디는 떠나면서도 선교사를 울렸고 온 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미(이더) 이사: 20여 년을 선교사 주변에서 부모님처럼 돌보아 주던 이더, 데이빗이 포트엘리자벳(700km)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오랜 친구 알렌 목사님 내외분을 모시고 마지막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마미는 건축현금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물건을 팔아 70만원을 현금해 주고 남은 여러 물건들을 주면서 팔아 건축에 보태라고 하여 안 그래도 슬프던 차에 마음이 더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기도 덕분에 2월 한 달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정전이 되는데 더위가 끝나갈 무렵이라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중국 발 우한 폐렴으로 생명을 잃으시고 고생하시는 고국에 계시는 분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이 곧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건기철을 보내며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여 영육간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추스러진 것 같은데 그래도 늦추지 않고 깨어있어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28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선교사

기도 제목

- 선교사의 안전과 건강 성령 충만으로 사역 감당 할 수 있도록
-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와 성장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이 잘 되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사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2. 코로나 19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만드는 허상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3. 코로나 19로 신앙생활의 위축보다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와 나라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도록.

나눔란

2020년 3월 1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세기 3:20~24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1)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여자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3:20).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들 이름을 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2:19). 심판받은 이 시점에 다시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아담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은 거두지 않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책망 대신 회복을 주시고 오히려 교회와 온 양 떼를 맡기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엡2:4)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3:15)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여자의 이름을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인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자 아담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히12:8).

(2)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3:21). 죄로 인한 수치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려주고 싶어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대속 제물이 있어야만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히10:12)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롬3:24).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그저 선물이지만(엡2:8) 주신 분은 생명의 희생으로 주신 것임을 묵상하는 사순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3)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3:23-24).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기에 내쫓음으로 그 고통을 면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격리해야 하듯 쫓아내어서라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징계 받고 있다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119:67)는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저주가 축복으로 멸시가 존경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나타납니다(계시록 22:2). 이렇듯 결말을 다 알고 사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피난처와 요새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는(시91:2) 은혜로 풍성한 갈보리 교회되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역대하 7:15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